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4호 [루게 제24962호] 주체104(2015)년 7월 3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  
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김정관 동지  
와 해당 부문의 일군들,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 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해 4월 최첨단과학기술  
성파로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김책  
공업종합대학 자동화  
연구소의 사업을 료해  
하시고 연구소를 세상  
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학연구기지로 새로  
건설해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풍치수려  
한 대동강반에 위치도 잡아주시였으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  
물로 일떠세우도록 연구소형성안을 여러  
차례나 지도해주시였고 인민군대의 강력  
한 건설력량을 동원시켜주시였을뿐 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  
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신 군인건설자들은 지난해 11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을 이어가  
며 결사전을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연구소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  
였다.

연건축면적이 7,130여㎡인 김책공업  
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원형식기본청사와 4층으로  
된 보조건물로 이루어져있다.

대학과 집에서 가까운 곳에 궁궐같은  
연구소를 건설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천어비이사람이 너무도  
고마워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는 연구사  
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는 연구소의 책임일군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동화  
연구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당에서  
비준해준 형성안의 요구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연구소를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멋쟁이건축물  
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원형관통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다고 하시  
면서 최첨단연구기지로  
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  
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  
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  
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  
구소를 우리 당의 과학기술  
증시정책, 인재증시정책을 직  
관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연구  
사들의 과학연구사업과 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일떠세웠다고 말씀하시  
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  
구소는 건축미학적으로나 실  
용성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독창성, 편리성이 철

저히 구현되었을뿐 아니라 조형화, 예술화  
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된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자연채광에 의한 조명시간을 늘  
리고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할수 있도록  
건물지붕을 유리건재로 마감한것을 비롯  
하여 에너지를 소비를 극력 낮출수 있게

태양열, 지열에너지를 적극 리용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건설에서 명에너르기,  
평탄소건축방향으로 나아갈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했다고  
하시였다.

연구실, 실험실, 회의실, 과학평의회실,  
응접실, 사무실, 침실, 식사실, 목욕탕, 운

동실들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연구사들이 연  
구사업과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도서열람실과 전  
자도서관, 녹화물시청체  
제도 더욱 원만히 갖추  
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  
과 인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  
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  
학 자동화연구소가 최첨  
단연구기지답게 꾸려진  
것만큼 연구소운영에 필  
요한 설비들과 료전기제  
들도 현대적인것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는 당  
에서 직접 풀어주시겠  
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김책공업총  
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정말 잘 건설  
했다고 하시면서 연구사들이 새로 일  
터인 연구소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전심  
전력할수 있게 되었다고 거듭 만족해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전하제일 인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장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제407군부대, 제101군부대 군인 당의 의도를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 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우리 당 위업을 받들어온 지난날의 전통을 이어 최첨단들 발휘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당우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전하제일 인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 파전의 기술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 본사정지보도반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6월 27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제르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여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아만적인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그해 10월 10일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락원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구현된 불멸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진보적인 류와 스위스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성대히 경축할것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이날들을 맞아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며 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우리 당의 역센 뿌리

###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결성 8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즐거이 이어지고 끝없이 빛나는 이 땅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가 뜻깊게 아로새겨지고있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그 력사적부름이 마련되고 모체적의 의를 가지는 첫 당조직이 결성된 때로부터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조선로동당!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변영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행로를 되새겨볼수록 우리 당의 시원인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던 력사의 그날이 더욱 가슴뜨겁게 일어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신 주체혁명의 력사이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85년이 되는 년월이 새겨지고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귀천에는 진명학교의 수수한 교실에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던 10대의 백두산청년장군을 우리러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던 열혈청년투사들의 환희의 웨침이 력사의 메아리가 되어 들린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격랑을 헤치며 먼바다로 노를 저어간다는 내용의 즉흥시를 읊으며 저저마다 첫 당조직 결성기쁨으로 베풀을 쓰고있다고 격정의 열변을 토로하던 열혈의 혁명가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력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칠 맹세로 가슴끓이며 희세의 친출위인을 모신 끝없는 영광과 기쁨을 활화산처럼 터치던 열혈청년혁명가들의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후날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던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전통이 아니라 대포라도 쓰고싶은 심정이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 이롭고 빛나는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이 소박한 명칭에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백두산위인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었는가.

우리 당의 타이머 세앗!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결성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당의 기층조직을 내오고 확대하는 데서 모체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여 주체혁명의 혁명적당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비범한 예지와 절충한 령도력, 한없이 교대한 인격을 천품으로 지니신 결세의 위인, 일찌기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불멸의

것으로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적위업이었다.

시대와 교조가 강물처럼 범람하고있던 그때 이제 겨우 투쟁의 첫걸음마를 댄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혁명적당조직을 내온다는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기적이였으며 10대의 젊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적령도력, 위대한 인력의 일대 과시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은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더욱욱 즐기치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첫 당조직이 결성된 얼마후에는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국내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와 두만강연안의 동맹일대, 북부조선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무성하게 태어나게 되였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은 물론 국내당조직들까지 장악되도록 됴므로써 우리 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체계는 더욱 정연하게 확립되게 되였다.

간고한 항일혁명의 나날에 이룩된 이런 고귀한 성과와 경험에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해방후 투쟁과 못되는 짧은 기간에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정경 20세기 역경의 순간과

다에서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혼란속에서도 자그마한 로선상착이나 탈선을 모르고 필승의 한길로 혁명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년대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의 력사로 빛을 뿌린다.

깊고 역센 뿌리를 가진 나무는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70년의 장구한 세월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끝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던것은 그 력사적부름이 깊고 역센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위황찬란한 미래도,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우리 당의 력사적부름에 의해 담보되였다고 우리는 긍지높이 말한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은 불과 10명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원들의 수는 수백만을 헤아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당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사적인 맨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전정의 승리를 안아왔다. 제가루만 훑날리던 빈터우에서 맨손으로 트랙트와 전기기판차를 만들어내며 이 땅에 천리마의 시대를 열치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원들의 미려운 모습은 오늘날도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을 그려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선군시대를 빛내이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강철의 의지와 열정을 북돋아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의 위력으로써 더욱 강해지고있으며 당원들은 어제날 건설동지사성원들의 모습으로 선군시대의 앞장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피를 뿜고 있다.

그렇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빛은 오늘날도 빛날것이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승리적행로에서 세차게 뿜는 건설동지사의 맥박과 숨결은 언제 한번 떠진 적도 벗어본적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원들의 수는 수백만을 헤아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당원들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결사적인 맨 앞장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전정의 승리를 안아왔다. 제가루만 훑날리던 빈터우에서 맨손으로 트랙트와 전기기판차를 만들어내며 이 땅에 천리마의 시대를 열치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보란듯이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원들의 미려운 모습은 오늘날도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을 그려보게 한다.

본사기자 강철 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부준부라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뵈 에 르 쿠룬 지 자 각 하**

나는 부룬디독립 5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30일 평 양

듀 니 스

듀 니 지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바쉬 까이 드 앓 씌씨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얻은 레포사건으로 수석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테로를 반대하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연대성을 확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1일 평 양

#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 항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도

### 집단적기술혁신으로 완공의 날을 앞당기리

#### 항해남도물길공사 중앙지휘부 일군들과 나누는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외 부강변역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명업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당창건 일흔년을 자랑한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항해남도물길공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변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을 만나 1단계 물길공사진행정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항해남도물길공사 1단계 진행정황에 대하여 알고싶다.

국장 우기홍: 뜻깊은 올해에 농산물 수확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가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특히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나라의 주요국창지대인 항해남도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쌀독을 채울수 있다. 그러자면 항해남도의 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철저히상의 예지로 통찰하고 항해남도대 규모로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지난 기간 개천 - 태성호 물길을 비롯한 물길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우리 돌격대에 이 공사를 통해 맡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물길건설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항해남도물길공사를 단번에 완수할 것임을 강력하게 약속하셨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건설사업을 현실로 꽃피워갈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항해남도물길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왔고 성과를 거두었다.

저장 김경호: 항해남도물길1단계공사의 규모는 방대하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배두의 혁명정신, 배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싸우고자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러하여 기본적수정지토공사는 4월말까지, 장식공사는 6월중순까지 완전히 끝내

며 무던이언제공사를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지난 4월말까지 많은 대상공사를 끝낸 자강도려단을 비롯하여 물길공사장 끝내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현재 물길공사실적은 75%계선을 넘어섰으며 흙출토율은 65%, 구조물공사는 54%계선을 돌파하였다.

기자: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작전에서 주목되는 문제들은 어떤것인가.

국장 우기홍: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10월의 대추전담으로 22만㎡의 토량을 굴착하지 않고 많은 세멘트와 모래, 17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저장 김경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앞선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본래있어 버리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타개하여 나가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민중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들이는 데 있다.

기자장 송영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막대한 열매수확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

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공사를 줄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여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해남도려단 참모장 리원찬 동무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책임일군인 창안한 《기초물길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물레결정에 대하여》 한가지만 놓고보자, 이 방법이 도입되어 22만㎡의 토량을 굴착하지 않고 많은 세멘트와 모래, 17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저장 김경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앞선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본래있어 버리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타개하여 나가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민중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들이는 데 있다.

기자장 송영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막대한 열매수확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

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결과 공사를 줄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여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항해남도려단 참모장 리원찬 동무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책임일군인 창안한 《기초물길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물레결정에 대하여》 한가지만 놓고보자, 이 방법이 도입되어 22만㎡의 토량을 굴착하지 않고 많은 세멘트와 모래, 17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저장 김경호: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앞선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본래있어 버리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타개하여 나가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민중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을 불러들이는 데 있다.

기자장 송영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막대한 열매수확하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

##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일군들은 무엇을 하냐 건설하여도 이쯤하면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요구성을 높여 모든 건설대상을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 세계적 높이에서 이룩 기법비적 창조를 통해 이룩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바와 같이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공사속도를 높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나보는 과정에 스킵할수 없는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콩크리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관사설이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항해남도물길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만년백년의 창조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이었다. 이것이 협의에 상정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때 려단장참모장 우기홍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것처럼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공사속도를 높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에 사색을 이어나가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발동발전기로 혼합기를 돌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때 려단의 한 시공원이 공중전과 같이 맞물리는 혼합물을 나르지 말고 바퀴가 하나인 손발차를 리용하자고 하였다. 손발차가 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발판을 설치하면 더 많은 혼합물을 나를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콩크리트는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할수 있었다.

이것은 공사의 질과 속도도 다같이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발동발전기를 설치하고 손발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현장에서 침식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돌격구호소리 높이 일군들은 대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투쟁정신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험은 공사의 질은 그 어떤 기술수단에 의해서 담보되는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 해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거어어 해내겠다는 일군들의 사상관절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 랑 강 도 려 단 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선우차를 잘 가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기기에 령력을 집중하여야 혁명적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리는 이 두가지 문제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항강도려단 려단장으로 사임하게 된 혁명철동우앞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자신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려단에서 기능공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단것이다.

두가지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선우차를 잘 가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기기에 령력을 집중하여야 혁명적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리는 이 두가지 문제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항강도려단 려단장으로 사임하게 된 혁명철동우앞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자신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첫번째 의견은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술과 기술공대원을 꾸려야 한다는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느것을 먼저 하겠는가 하는데서 는 수리의 주장이 었갈리고있다.

도 없었다. 그때 려단장은 우리가 이 일을 누가 도와줄것을 바라고 시작했는가,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달려오면 못해낼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았다. 기계속내에 밝은 돌격대원들을 모셔와 주어 눈멀기가 있고 손재간이 있는 돌격대원들로 기술소대를 조직하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실지 설비들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주게 해주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얼마든지 가능대원을 늘일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안은 현실속에서 배우면서 빠른 기간에 기능공문제를 강화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려단에서는 돌격대원들을 선발하여 기술소대를 조직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빈바람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려단일군들은 배두 밀림에서 창조된 연길복판정신으로 압축기와 변압기, 전동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수리보수할수 있는 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 나날에 려단에서는 기능공대원을 증진되도록 3배로 늘이게 되었으며 수리기술을 튼튼히 꾸려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모든 설비들이 만가동함에 따라 려단의 공사실적은 2배, 3배로 뛰여오르게 되었다.

##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항해북도려단 평산군대대장 리광준동무는 실력가형의 일군이다. 항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되어 오늘까지 자신의 깨끗한 랑심을 바쳐가고있다. 대개 언제나 전투력있는 단위로 되고있는 자랑속에는 자업자득수행의 위를 부추키는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

##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남포시 려단에서 발이 닳도록 뛰고 두땀머리는 사업에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들이고 대오의 진격로 열어나가는것은 이 려단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지난 5월 어느날 려단은 립석참관공사를 40일만에 끝내며 대내 새로운 전투과업을 받게 되었다. 일군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직접 현장을 밟아보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를 포착하게 되었다. 잠안이 지나가게 되었는데는 하천정형의 대개 높은것으로 하여 물길을 돌리는 공사만 하라고 해도 한달이라는

하고 대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투쟁정신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때 려단장참모장 우기홍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신것처럼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공사속도를 높이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일군들이 무엇을 하나 건설하러도 이따금씩 된다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천년백년 후의 후손을 위하여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절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과와 변압기, 작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노동자와 같이 애호 관리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소대의 모든 돌격대원들이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아글라를 노력하고있다. 무가 그들 려단의 보배덩이라고 칭찬한다.

그는 오늘도 설비의 만가동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남포시려단 천리마구역대 김복룡동무는 소문난 살림꾼이다. 침실이며 취사장을

비롯한 대대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돌격대원들을 위해 한가지 음식이라도 더 해주고싶어 애쓰는 그에게 있어서 그들은 천형제였고 대대는 정든 집과 같았다.

누가 보곤말도 예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며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그를 돌격대원들 모두가 사랑하고 있다. 하기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돌격대원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는 그를 가리켜 대대 돌격대원들은 만능이라고 부르

리광준동무      서광현동무      김복룡동무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 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2일 대인구역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리원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계부, 직맹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부덕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덕이 있고여 복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덕부이라고 불리주며 한몸에 인양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심만큼 하루와 같이 농업부문에 성실하게 일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쌀로써 우리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그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거듭 안겨주시며 결실열매를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코로나 감격과 격정속에 열렬한 사랑을 받아안은 김진수, 허덕부과 가족, 친척들은 남이 갈수록 더 해내는데 대같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대해 높이 받들어모시고 열의에 넘쳐있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2일 주조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인류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쌓으셨으며 탁월한 사상과 평등로 세계를 구해주시고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써여져있었다.

## 영웅의학과사녀성일군이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위대한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혁명전사들의 값있는 삶을 꽃피게 해주고 영광의 절정을 빛을 뿌리셨다.

일미친 하온빈재,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김진수와 평양시농군맹원위원장 허덕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해방전 피눈물을 흘리며 다니던 학교마저 중퇴하지 않았던 안도였던 빈농민의 아들인 김진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워 인사, 교수, 박사로서 성장하였으며 아버지장군님의 보살핌속에서 복된 삶을 누려왔다.

치료예방사업과 교육사업,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두고 그러도 만족해하시며 김일성상세관인, 로력영웅의 값있는 칭호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그를 영광의 대회들에 대표로 불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난 허덕부의 성장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아로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녀 시절 분조장으로 일하던 그와 남다른 인연을 맺으신 때부터 친지지도의 길에서, 중요대회장에서 자주 만나주시어 인연을 위해 더 많은 일군을 하라고 고무해주시며 이리 큰 은정을 부어주시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 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2일 대인구역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리원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계부, 직맹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부덕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덕이 있고여 복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덕부이라고 불리주며 한몸에 인양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심만큼 하루와 같이 농업부문에 성실하게 일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쌀로써 우리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그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거듭 안겨주시며 결실열매를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코로나 감격과 격정속에 열렬한 사랑을 받아안은 김진수, 허덕부과 가족, 친척들은 남이 갈수록 더 해내는데 대같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대해 높이 받들어모시고 열의에 넘쳐있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 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21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맹세모임이 2일 대인구역에 높이 모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었다.

리원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계부, 직맹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부덕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덕이 있고여 복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덕부이라고 불리주며 한몸에 인양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심만큼 하루와 같이 농업부문에 성실하게 일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쌀로써 우리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그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거듭 안겨주시며 결실열매를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코로나 감격과 격정속에 열렬한 사랑을 받아안은 김진수, 허덕부과 가족, 친척들은 남이 갈수록 더 해내는데 대같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대해 높이 받들어모시고 열의에 넘쳐있었다.







